# 유런 6주차 변지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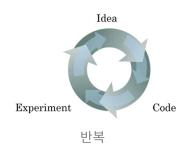
### Train/Dev/Test 세트

#### hyper params

- 신경망이 몇 개의 층 가지는지
- 각 층이 몇 개의 은닉 유닛을 가지는지
- 학습률과 활성화 함수는 무엇인지
- etc

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값을 추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.

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신경망을 알기 위해선 반복을 통해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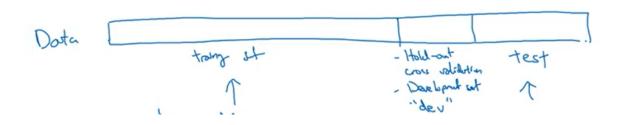


#### 성능 결정 요인

-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
- 입력 특성의 개수
- 컴퓨터 설정
-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

따라서 빠른 진전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 사이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 수 있는지와 데이터 세트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.

훈련, 개발(검증), 테스트 세트를 잘 설정하는 것은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반복을 빠르게 해준다.



• 훈련 세트 :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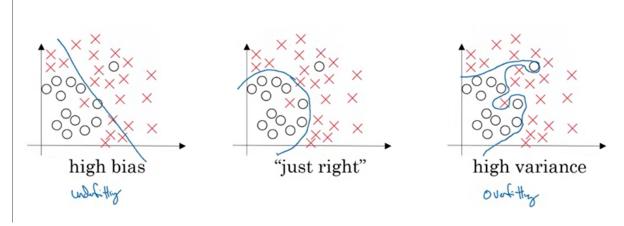
• 개발 세트 : 다양한 모델 중 어떤 모델이 좋은 성능 나타내는지 확인

• 테스트 세트 :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, 테스트 세트의 목표는 최종 네트워크의 성능에 대한 비편향 추정을 제공하는 것이다.

빅데이터 트렌드⇒개발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훨씬 더 작은 비율이 되는 것이 트렌드이다. 왜냐하면 개발 세트는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크면 되기 때문이다. 20%, 10% 까지도 필요하지 않다.

## 편향/분산

#### Bias and Variance



2차원 데이터의 편향과 분산에 대한 시각화

#### 개 고양이 문제에서

1. Train set error: 1%

2. Dev set error: 11%

라면 훈련 세트에 overfit 되었다고 한다. ⇒ HIGH VARIANCE

1. Train set error: 15%

2. Dev set error: 16%

훈련 데이터에도 잘 맞지 않는다면 데이터에 underfit 된 것이다. ⇒ HIGH BIAS

1. Train set error: 15%

2. Dev set error: 30%

두 개 다 최악.. ⇒ HIGH VARIANCE, HIGH BIAS

1. Train set error: 0.5%

2. Dev set error: 1%

베스트 ⇒ LOW VARIANCE, LOW BIAS

이 모두 베이지안 오차가 다 0에 가깝다고 가정한다(인간은 보통 개 고양이를 다 분류 가능하기 때문이다), 훈련 세트와 개발 세트가 같은 확률 분포에서 왔다고도 가정한다.

Train set 에서 bias 를 확인하고 dev set 에서 variance 를 확인할 수 있다.

### 머신 러닝을 위한 기본 레시피

기본 레시피

bias 를 확인 하기 위해선 trainig set 를 봐야한다.

- ⇒ high bias 라면 더 많은 은닉 층 혹은 은닉 유닛을 갖는 네트워크를 선택한다.
- ⇒ 더 오래 훈련시키거나 다른 발전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.
- ⇒ 다양한 신경망 아키텍처를 찾는다(optional.. 위에 것들은 해가 되진 않는다.)
- ⇒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

편향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복한다.

variance 를 확인 하기 위해선 dev set 를 봐야한다.

- ⇒ high variance 라면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게 best
- ⇒ 정규화 시도
- ⇒ 다른 신경망 아키텍처를 찾는다

분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복한다.

방법이 다르므로 편향과 분산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bias variance trade-off는 이전 머신러닝 연구에서 있었지만 딥러닝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큰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더 큰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분산을 해치지 않고 편향을 감소시킨다. 정규화를 올바르게 했다면!

또한 데이터를 더 얻는 것도 대부분 편향을 해치지 않고 분산을 감소시킨다.

따라서 더 큰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이 두 단계는 편향만을 감소 시키거나 분산만을 감소시키는 틀이 된다. 신경써야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.

## 정규화

높은 분산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. 데이터를 더 얻는 방법은 비용이 든다.

weight 에 대한 정규화 한다. 거의 모든 매개변수는 weight 에 있기 때문에 bias 는 포함하지 않는다. 원한다면 해도 된다

• 비용함수: 
$$J(w,b) = rac{1}{m} \sigma_{i=1}^m L(\hat{y^{(i)}},h^{(i)}) + rac{\lambda}{2m}||w||^2$$

• L1 정규화:  $||w||_1=\sigma_{j=1}^{nx}|w_j|$ 

• L2 정규화: 
$$||w||_2^2 = \sigma_{j=1}^{nx} w_j^2$$

보통 L2 정규화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.

람다는 정규화 매개변수로 불리며 하이퍼파라미터이다. 개발 세트 혹은 교차 검증세트에 주로 쓰인다. 다양한 값을 시도해서 과대적합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값을 찾는다.

• Frobenius 노름: 
$$||w^{[l]}||_F^2=\sigma_{i=1}^{n^{[l-1]}}\sigma_{j=1}^{n^{[l]}}(w_{ij}^{[l]})^2$$

아래 첨자에 F를 추가해서 표기한다. L2 대신 프로비니어스 norm 이라고 부른다. 행렬의 원소 제곱의 합이라는 뜻이다.

#### 어떻게 역전파?

이 항은  $w^{[l]}$  가 어떤 값이든 값이 약간 작아지게 한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L2 norm 은 weight decay 라고 불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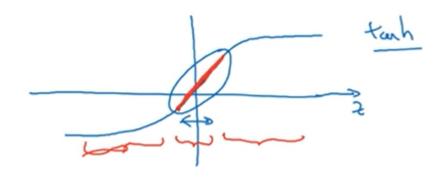
### 왜 정규화는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을까요?

직관1: 왜 정규화가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? 가중치 행렬을 막기 위해 보라색 부분이 추가되었었다.

그러면 왜 L2 혹은 프로베니우스 norm 을 줄이는 것이 과대적합을 막는 것일까?

람다를 크게 만들어서 가중치 행렬 w를 0에 상당히 가깝게 설정할 수 있다. 이는 곧 은닉 유 닛의 영향력을 죽여준다. 그럼 로지스틱 회귀 유닛에 가까워진다. 그러면 HIGH BIAS 가능성이 생기므로 중간의 딱 맞는 경우와 가깝게 하는 적절한 람다 값을 찾는 것이 좋다.드롭아 웃 정규화

직관2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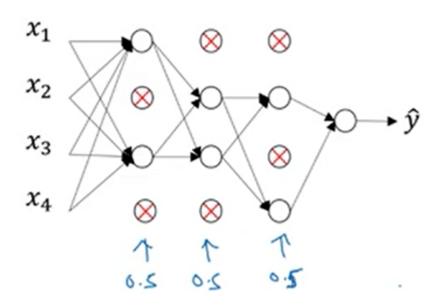
tanh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을 경우, 람다 값이 커지면 비용함수에 의해 w는 작아지고 z도 작아진다. 이 때 z 구간은 tanh에서 거의 1차원 함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층이 선형 회귀처럼 거의 직선이 된다. ⇒ 비선형성을 죽임

#### 드롭아웃 정규화

L2 정규화 외의 정규화 기법

신경망의 각각의 층에 대해 노드를 삭제하는 확률을 설정하여 삭제할 노드를 랜덤으로 선정 후 삭제된 노드의 들어가는 링크와 나가는 링크를 모두 삭제한다.

작아진 네트워크로 다시 훈련 시킨다.



1. 역드롭아웃 : 노드를 삭제 후에 얻은 활성화 값에 삭제하지 않을 확률을 나눠준다. 이로 써 기존에 삭제하지 않았을 때 활성화 값의 기대값으로 맞춰질 수 있다.

#### 드롭아웃의 이해

랜덤으로 노드를 삭제시킴으로써 하나의 특성을 의미하는 노드에 의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중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. keep.prop 확률은 층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.

드롭 아웃을 입력층에도 쓸 수 있으나 안 쓰는 것이 좋다. 따라서 입력층의 keep.prop 은 1에 가까운 수를 사용한다.

- cv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드롭 아웃 기법을 쓴다.
- 드롭 아웃을 할 때는 경사 하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

## 다른 정규화 방법들

- 데이터 증식
  - 이미지를 증강시켜 데이터를 늘릴 수 있다.(반전, 회전, 변형, 왜곡)
  - 。 컴퓨터적 비용이 안 든다
- 조기 종료
  - 앞쪽 w는 0에 가깝고 반복을 실행할수록 w는 커진다. 중간에 멈추면 w가 중간 크기의 값을 갖는 상태이다. 따라서 신경망이 덜 과대적합된다.
  - 단점: 비용함수를 최적화하는 것도 멈추게 된다

